삼재팔난 시대 불교는 무엇을 해야 하나

현불논단



김응철 교수
중앙승가대

세간에서 회자되는 삼재(三災)는 자연재해인 화재, 수재, 풍재를 말한다. 재난 중 국가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대삼재'라고 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소삼재'라고 한다. 소삼재에는 먹을 것이 부족해지는 '기근재',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확산되는 '질역재', 그리고 극렬한 갈등이나 전쟁이 발발하는 '도병재(刀兵災)' 등이 있다. 이러한 재난으로 발생하는 고통에는 천재지변으로 일어나는 '의천고', 사회 구성원이나 지도자의 문제로 발생되는 '의외고', 내적인 정신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의내고' 등도 있다.

최근 지구촌은 다양한 재난들로 고통이 확산되고 있으며, 급기야는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인도와 파키스탄 전쟁, 미얀마 내전 등을 비롯해 크고 작은 갈등과 '도병재'가 횡행하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급증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 올린 관세전쟁으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는 빠르게 위축되고 경제적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에도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이러한 세계적인 전쟁은 패권 국가의 국력이 약화되면서 국제질서를 지키려는 세력과 변화시키려는 세력들이 국가 차원에서 충돌할 때 발생한다. 2025년 현재

불살생계 바탕 전쟁·폭력 반대 분명히
생명 존중·평화 추구 활동 전개 역할 주도
시대 선도 대승 보살 육성하고 활동 지원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전쟁들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 및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 양상이다. 1991년 구소련의 붕괴 후 미국의 정치적·경제적 영향력 아래 유지된 세계 평화, 즉 팍스아메리카나가 끝나면서 빠르게 세계적인 전쟁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인 갈등과 전쟁이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불교는 불살생계를 바탕으로 전쟁과 폭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생명 존중과 평화를 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역할을 주도해야 한다. 세계 평화가 특정 종교단체의 활동만으로 성취되기는 어렵지만, 세계인들의 인식이 전환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불교는 사람들의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마음의 평화와 사회적 평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불교가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승 보살들을 육성·활동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세계 각국의 불자들이 연합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이웃 종교인들과 연대하면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삼재팔난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그 앞에서 주저앉기보다는 지혜롭게 대응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승 보살이 해야 할 일이다. 초발심 보살의 공덕이 삼계를 정화하고, 한량없는 사람들을 성불의 길로 이끌어 주는 무량한 공덕이 있다는 〈화엄경〉의 가르침을 의지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보여 줘야 할 때다.

한 생각의 변화가 무량겁의 변화를 이끌 수 있으며, 한 사람의 지혜가 무량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는 대승 보살의 신념이 필요한 때다. 우리 모두가 대승 보살의 길을 발원한다면 삼재팔난의 고통이 가중된다 해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찾을 수 있다.

도쿄국립博, ICOM 윤리강령 지켜야

세간과 출세간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국제박물관협의회(이하 ICOM)는 1946년 출범한 국제기구다. 2023년 현재 약 140여 개국의 박물관과 관련 종사자 4만5천여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박물관 대표 기구다. 주요 활동으로 전문적·윤리적 박물관의 기준 정립과 국제사회에서 박물관 목소리를 대변한다.

ICOM 윤리강령은 제국주의와 전쟁 시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미술품, 종교적 성물 등이 약탈·파괴·훼손되면서 강자(强者)의 창고, 전시장으로 전락한 박물관을 윤리적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1986년 제15차 ICOM 총회에서 제정됐다. 이후 '윤리강령' 개명과 확정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윤리강령은 이전의 문화재 제국주의 입장이 아닌, 문화재 국가주의 입장에서 박물관이 도덕적·윤리적이고 이웃과 공동체에 봉사를 원칙으로 하며 전문적으로 운영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유산 피해국 입장에서 윤리강령에는 중요한 내용이 많다. 예를 들어 "박물관이 합법적인 소유권을 가진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박물관 자료도 구입, 기증, 대여, 유증 또는 교류를 통해 수집할 수 없다. 일정한 국가 내에서 법률상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반드시 합법적인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도 그렇다.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며 약탈, 도굴, 강제 이송된 문화유산을 소장 중인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등은, 윤리강령상 '합법적 소유권'

ICOM, 국제사회서 박물관 대변
윤리강령은 문화재 국가주의 입장
문화유산 반환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

을 입증해야 함에도 '취득 불명'이나 '기증'으로 처리하며 전시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서산 부석사 불상 사례와 같이 점유 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합법적인 소유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약탈품을 대마도 시립박물관이 보관 점유하고 있는 점에서 윤리강령에 입각하면 비판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일제강점기 수집 반출한 오구라 수집품의 경우, 1981년 도쿄국립박물관이 1030점을 기증·양도 받음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문화재 협정 때부터 반환을 요구했고, 도쿄국립박물관으로 양도된 후 1984년부터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구했다. 이 점에서 '소장품의 출처지'와의 협력을 강조한 윤리강령을 살펴보면 도쿄국립박물관이 얼마나 비윤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윤리강령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물관은 박물관 자료가 유래한 국가 또는 민족과 문화재 반환에 관한 대화를 개진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박물관 자료가 유래한 국가 또는 민족이 국제 및 국제 법령을 위반하여 반출 또는 양도된 것으로 확실시되는 박물관 자료의 반환을 요청하고 그것이 실제 요청 국가 또는 민족의 문화적·자연적 유산일 경우 관련 박물관은 법이 허용하는 한 해당 박물관 자료의 반환에 협력하기 위해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박물관은 피점령지 영토에서 유래한 문화재의 구입이나 취득을 금지하고 박물관 자료의 반입, 반출 및 양도를 규제하는 모든 법과 협약을 전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도쿄국립박물관은 ICOM 가입 박물관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환수문화유산기념박물관은 ICOM에 가입해 비윤리적인 일본의 박물관을 비롯해 가해국의 불법 취득 문화유산의 원상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쟁투해 나갈 것이다.

社 說

헌법 정신을 흔들지 말라

정치 지도자의 언어는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도, 분열시킬 수도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보인 일련의 행보는 후자에 가깝다.

그는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한 종교적 신념을 지속적으로 발언해 왔다. 급기야 당 대표 자격으로 교회를 공식 방문해 "하나님의 종에 대적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라 공언했으니, 이는 개인적 신앙 고백이 아닌 공당 대표로서의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분리 원칙은 민주주의의 기초다. 그러나 장 대표는 공적 자리에서 종교적 언어로 정치 현안을 해석하며, 대한민국을 다종교·다문화 사회가 아닌 특정 종교 중심 사회로 비치게 했다.

가뜩이나 극단적 이념 대립과 국론 분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사회 갈등의 불씨를 더욱 부추기는 행태다. 불교계뿐 아니라 개신교 내부에서도 그의 발언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 모두의 다양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정치 지도자의 기본 책무다. 종교를 정치적 지지 기반 결집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곧 국민의 신뢰를 잃는 지름길이 된다.

특정 종교에 치우친 언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정치 지도자라면 종교적 중립과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민주사회 지도자의 최소한의 품격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북한 출신 대학생 불교동아리 창립에 부쳐

동국대에 26번째 불교동아리가 창립됐다. 이들 동아리 회원들은 조금은 특별한데 모두 '북한 출신 대학생'들이기 때문이다. 종교를 중심으로 북한 출신 대학생들이 모임을 결성하는 것은 흔치 않고, 불교에서는 첫 창립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동국대에 소속된 불교동아리지만 연합체 형식을 띠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동아리에는 고려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 전국 24개 대학 53명의 학생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예비 대학생들도 포함됐다.

동국대는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을 통해 2022년부터 북한 출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학생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해 왔다.

지난 8월 23~25일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과 윤재웅 동국대 총장이 16개교 23명의 북한 출신 대학생들과 함께 독도·울릉도 탐방을 진행하며 대학생 전법의 원력을 세우기도 했다.

자유를 꿈꾸며 사선을 넘어 탈북했지만 체재와 이념이 다른 남한사회에서 탈북 청년들이 적응하기란 녹록치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스님과 불자들의 세세한 지원 및 관심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내 부처님 법 아래 모일 수 있게 됐다.

북한 출신 학생 불교동아리 창립은 전법·포교의 중요한 성패는 '관심'에 있음을 보여준다. 꾸준한 관심과 지원만이 탈종교세대들을 불연(佛緣)으로 이어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69년(2025) 10월 1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법계 품서식 봉행

본종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화합의 승단을 목표로 본 종단 종헌 및 승니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계 품서식을 다음과 같이 봉행합니다.

▮일시 : 11월 10일 월요일 11시
▮장소 : 서울 일붕선원 대법당

불기 2569년(2025) 10월 1일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 고시위원회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10월 1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인천지역 상주하시는 종무원장 스님과 종도 스님들을 모집합니다.

010-6219-4757, 010-5385-3658

불기 2569년(2025) 10월 1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